

소설 독자를 위한 ‘여로형 소설’의 이론적 탐색

김 동 환*

요약

이 논문은 소설 독서 욕구를 지니고 있으나 실천에 어려움을 보이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읽기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필자의 경험적 판단에서 독자의 소설 읽기 활동이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기능이 토대가 되는 방법적 틀이 필요한데, 그 한 사례로 여로형 소설을 통한 소설 읽기 전략의 터득이라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여로형 소설에서 여로 구조는 독자의 경험이 뒷받침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인식적인 기능이 자연스럽게 수반되고 자신의 삶으로의 전이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정형화되고 체계가 약한 여로형 소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기에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로의 유형에 앞서 발생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전사(前史)를 살핀 이후 조건들을 추출하여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목적 달성 여부’, ‘복귀 여부’를 두 축으로 삼게 되었으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 결합 양상을 유형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후 논의에서 소설 독서를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서의 여로형 소설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와 체계화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방법적 전략, 여로형 소설, 여로 구조, 인식적 기능, 목적 달성, 복귀 여부

* 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 트랙 교수

목차

1. 논의의 출발점
2. 여로형 소설의 탐구와 유형화
3. 여로형 소설과 소설 독서 방법으로서의 유용성

1. 논의의 출발점

이 논의는 ‘효율적’이고 ‘주체적’인 소설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독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출발했다. 소설 독서 방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효율성’과 ‘주체성’을 설정한 셈인데, 이는 필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 텍스트에 현저하게 높은 비중으로 노출돼 있었고 또한 익숙해져 있는 독서 대중’들이 소설 독서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적 전략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몇 개의 사례 작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터득하고 이후 주체적으로 소설을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요약된다. 여기서 효율성은 다양한 부문에서 소설 독서 교육을 설계 하거나 직·간접으로 교수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주체성은 소설 독서의 당사자를 고려한 측면에서 설정한 조건이다.

여로구조를 지닌 여로형 소설은 ‘몇 개의 사례 작품’으로서 매우 적절한 요건을 갖춘 소설 유형이다. 이 같은 단정은 그동안 필자가 수행해 온 다양한 실험적 강의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얻어진 귀납적 사고의 결과이다.¹⁾ 여로형 소설이 소설 독서 교육의 사례 작품 유형으로 적절한 근거에

1) 필자는 대학에서 교양 및 전공 강의로 개설된 소설 관련 강의에서 학습자를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을 통해 소설교육을 받은 이후 소설 독서와는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과 최소한의 관련을 맺고 있는 그룹으로 나눠 관찰과 과제 수행 등을 통해 평생 독자로서 성장한 가

대해서는 이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부분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문학교육의 결과로 이상적인 독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학습자가 우리 시대의 다양한 소설을 교육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력자 없이 자력으로 읽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 소설들이 빈번하게 취하고 있는 여로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내는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소설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로구조를 활용해서 소설읽기를 시도할 경우 주체적인 접근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삶의 과정을 여로에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의 보편적인 속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내적 형식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로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것이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은 여로구조의 파악이 읽기 전략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셋째, 여로구조가 지닌 또 하나의 전략적 이점은 여로 자체가 독자의 삶이나 상황으로 전이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아직 미숙한 상태의 학습자들로서는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거나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작품에 접근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여로구조를 취한 소설의 읽기는 여로가 삶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독자 자신의 삶이나 상황으로 전이시키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닌다.”²⁾

필자는 이와 같은 귀납적 판단에 근거해서 여러 차례 강의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여로형 소설을 사례로 ‘주체적 소설 읽기 방법 터

능성과 그 방안에 대해 고찰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고 운영해 온 강좌들은 ‘이미지와 언어의 세계’, ‘문학과 문화의 융합적 이해’, ‘우리 시대의 소설 비평’, ‘문제해결의 소설적 전략’ 등이다.

2) 줄고(2015), 『소설 읽기 전략으로서의 여로구조 읽기』, 『문학교육학』 49, 113면.

득'을 목표로 한 활동들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반복되는 수행 과정에서 여로형 소설과 관련된 '양식적 이론'의 정립 필요성을 점차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논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계되었다. 여로형 소설과 관련된 개념들이나 이론 체계를 재규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기로 한다.

'여로형 구조' 또는 '여로 구조', '여행 소설', '여로 소설' 등의 용어는 기존의 연구물들에서 낫설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김윤식 교수의 소론³⁾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여로형 소설'에 대한 논의는 몇몇 연구자들의 논구를 통해 일정한 정도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문학연구물들을 범주화하는 일이 그리 합당한 것은 아닐 터이나 이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연구물을 굳이 선별해 낸다면 30여 편 정도였는데, 개념의 익숙함에 비해 실제 연구물들은 소략한 편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 또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별 작품 연구, 작가론의 한 부분으로서의 연구, 문학교육이나 문학치료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이미림의 논의들은 각 부문을 아우르는 접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물들을 살펴면서 본 연구자가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각론에 머무르고 있어 가장 오래된 소설 구조 중의 하나인 여로 구조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이미림의 연구물(이미림,

3) 김윤식은 염상섭 연구(1987)에서 〈만세전〉의 소설적 특성을 '원점회귀형 여로구조'로 규정했으며, 대하소설을 다루면서 '네 가지 여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여로 구조에 대한 관심이 일기도 했으나 그 개념이 지닌 확장성의 문제로 인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즉 '여로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적 논지와 제한적인 해석적 논지 외에 의미 부여의 맥락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기에 논의가 활발하게 확장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도 소설의 구조라는 측면보다는 '여행', '공간', '과정' 등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연구자는 종합적으로 '여행소설의 다각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지만 유의미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수편의 논문을 통해 제기된 '치유'의 범주로서의 접근이나 문학교육적 접근(이소운, 2007)은 주목할만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관광학의 맥락(박인정, 2015)에서 이루어지거나 특정 작품의 이해라는 측면에 머물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2. 여로형 소설의 탐구와 유형화

1) 이야기와 여행

인류가 남긴 대표적인 공공재로서의 이야기 양식은 다양한 모티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각국의 민족문학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티프들의 보편성은 왜 이야기 양식이 공공재로 인식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속성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여행'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모티프들은 이야기 양식의 보편성을 설명해주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 양식은 왜 '여행'이라는 범주에 그렇게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여로형 소설에 대한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구조와 여행

일반적으로 소설의 구조적 특성을 이야기 할 때 '갈등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른 갈래의 구조와는 달리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물론 고전소설 일반에서는 '욕망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야기 양식의 기본 구조를 욕망구조와 갈등구조로 달리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

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욕망과 갈등을 선택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이다. 이야기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욕망과 갈등 중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선택해서 스토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생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에 따라 욕망 또는 갈등이 주된 동력이 된다는 것인데, 이 입장은 욕망과 갈등을 동일한 위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둘째, 욕망과 갈등을 연계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어떤 이야기가 욕망의 달성에만 초점을 두거나 갈등의 양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자연스럽게 갈등의 과정을 통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이야기의 공과를 평가하는 맥락과 통한다. 어떤 욕망을 지닌 인물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그 욕망을 달성하게끔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이야기의 깊이는 덜하게 된다고 본다. 반대로 인물이 겪게 되는 갈등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방식 또한 이야기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셋째, 이야기의 발전사적 측면을 고려한 견해이다. 이 견해는 흔히 근대 이전의 이야기 양식과 근대 이후의 소설 간의 관계를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살피게 된다. 근대 이전에는 중심 인물들이 지닌 욕망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비해 근대 이후에는 인물들의 욕망이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사건들이 소설 양식의 요체를 이룬다는 발상이다.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볼 때 소설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욕망 추구에 따른 갈등구조’라고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보고자 한다. 즉 한 이야기에서 욕망구조와 갈등구조라는 개념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고 두 개념이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겠지만, 이야기 양식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데는 갈등구조가 중심

에 놓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서정 양식과 다른 서사 양식의 의미망은 삶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등구조를 중심에 놓고 보는 관점에서도 여행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삶은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으며 이야기는 삶의 표현물이다. 특히 집합이 아닌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근대 이후의 소설들에서 갈등의 형상화는 더욱 의미 있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여행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관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대 소설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하는 『돈키호테』를 통해 근대적 서사성의 추동력이 갈등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여행이 그 갈등의 형상화 장치로 등장한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즉, 근대 소설의 기원에 해당하는 소설의 핵심 요소가 욕망에서 갈등으로 전이해 가는 과정에서 발현된다는 점과 함께 여행이라는 장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본격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돈키호테는 세상에 정의를 내리고 불의를 타파하며 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에 나섰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출정은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나는데 그의 욕망이 주변의 세계(관)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사회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욕망이 어떻게 서사적 갈등으로 전이해가고 그로 인해 이야기의 구조를 갈등 구조로 인식하게 되는 소이를 설명해 주는 이론은 바로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다. 다음 구절들은 그 한 사례이다.

“대상을 향한 돌진은 근본을 파헤쳐 보면 중개자를 향한 돌진이다. 그런데 내면적 간접화에서는 이 돌진이 중개자 자신에 의해 제지된다. 왜

나하면 이 중개자가 그 대상을 욕망하거나 또는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델에 매혹된 제자는, 그 모델이 제자에 맞서 설치한 기계적인 장애물에서, 제자에 의한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를 필연적으로 보게 된다. 이 제자는 자신을 충실한 신하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화의 관계들을 거부할 생각만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 관계들은 더욱 확고하다. 왜냐하면 중개자의 명백한 적대감이 그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체는 그의 모델이 스스로를 주체 자신보다 너무 우월하다고 믿어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는 모델에게 갈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갈등의 감정이란 가장 순종적인 존경심과 가장 강렬한 원한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⁴⁾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것이기에 설명을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욕망 -> 간접화 -> 갈등으로 이어지는 서사 과정이다. 선부른 일반화일 수 있지만 서사의 발전 과정의 한 양상을 욕망 구조에서 갈등 구조로의 변모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돈키호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간접화의 양상이 여행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이다. 출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모험 성격의 여행이 없었다면 간접화는 가능하지 않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등장인물들은 지나간 시대의 인물을 중개자로 삼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의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갈등이 서사의 축으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대적 소설의 출발 시점부터 갈등 구조에서도 여행은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일차적으로 이야기 양식에서 여행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단초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접근 틀 또한 서사 양식의 변모라는 큰 맥락에

4) 르네 지라르(김치수 외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그레이트북스, 2002, 51~52면.

서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 여로 구조를 서사 양식의 전개사라는 측면에서부터 탐색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여로 구조를 여러 서사적 장치 중의 하나라는 측면보다는 서사의 발전 단계에서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의 무게를 부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가고자 한다.

2) 서사구조와 여로

흔히 여로형 소설이나 여로 구조라는 말을 쓰곤 한다. 그렇다면 두 개념을 어떻게 연계해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기로 한다. 여로형 소설은 여로를 구조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소설의 유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로형 유형에 속하는 소설들은 여로를 구조를 형성하는 여러 장치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여행이라는 장치가 다른 장치들에 비해 좀 더 높고 차별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여행이 단순한 장치로 등장하는 경우는 여로형 소설로 부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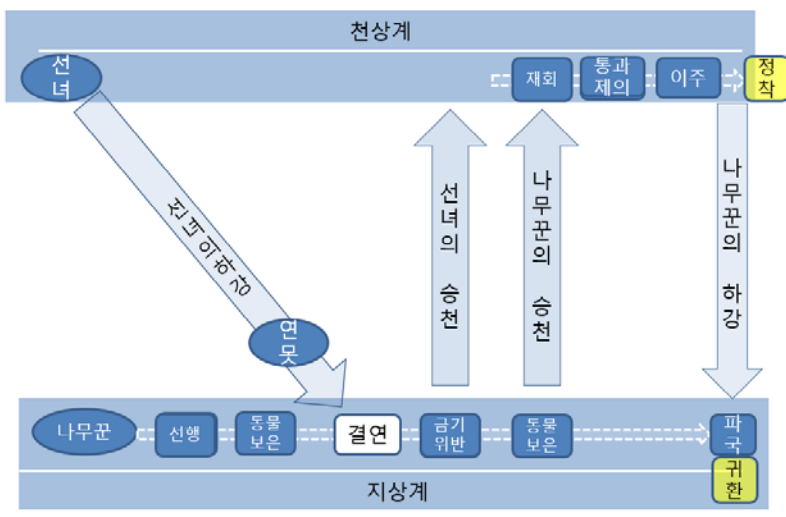
여행 소설이 아닌 여로형 소설로 부르는 이유는 여로가 여행보다 구조적인 속성을 더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표상하는 추상적 개념에 가깝다면, 여로는 그 여행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구조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로'에서 '로'는 '길'을 의미하고, '길'은 구체적인 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어떤 장치가 소설의 구조 속으로 편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시작-중간-끝이라는 과정과 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여행 자체는 표면적 시간상으로는 시작-중간-끝이 분명하지만 어떤 행위의 의미상으로는 언제나 그 과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여행은 의미보다는 형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에 여로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성을 띤 공간적 요소로서의 '길'

은 계기적 또는 목적적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기능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로와 플롯

여기서 여로와 플롯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어떤 구조의 중핵적인 요소로서 플롯과 여로가 긴밀하게 대응할 때 의미 있는 서사 유형으로서의 여로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민담의 하나인 ‘나무꾼과 선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⁵⁾



5) 이 민담은 다양한 변이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나무꾼 지상 회귀형’을 대상으로 삼았다. 구조상으로 가장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유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민담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52-82면.

이 민담에서 서사구조는 지상계와 천상계로 구성되는 공간적 요소와 두 공간을 오가거나 각 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plot events)들로 구성된다. 플롯을 구성하는 사건들은 하강-결연-승천-재회-하강 등이 주축이 된다. 여기서 여로는 하강과 승천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이동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여로는 두 중심 인물간의 결연과 재회라는 계기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행동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플롯을 아우르는 요소로 기능한다.

이 이야기에서 여로의 출발점은 선녀의 하강이다. 이 하강의 목적은 나무꾼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나 결국 나무꾼과의 결연으로 이어지면서 서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모하게 된다. 다음 여로는 선녀의 승천과 그에 따른 나무꾼의 승천이라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여로 단계는 나무꾼이 고난의 성격을 띤 통과제의를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있는 단계로 설정되고 있다. 즉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무꾼이 승천하는 길은 매우 이질적인 두 공간을 이어주는 구체적인 길이었고 그 결과 나무꾼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무꾼이 선행을 베풀어 동물을 구출해 준 덕분에 선녀와 만나는 계기를 얻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를 여로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넓게 본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데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로라는 장치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반드시 여로로 이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로형 소설은 어떤 소설의 개별적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소설들의 공통적 자질을 지칭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소설을 여로형 소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해당 유형의 소설들의 다양한 의미망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로형 소설의 필요 조건인 여로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서사적 장치들이 그 서사구조의 핵심에 해당하는 여행을 유발시키거나 이끌어 가

는 것일 때 한해 여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맥락은 해당 텍스트가 창출해 내는 메시지와 여로의 관계이다. 이 민담에서 나무꾼은 지상계에서 천상계로의 이동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겪는다.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모친을 남겨둔 채 천상계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 욕망은 나무꾼이 욕망이 달성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취되지 않는다. 나무꾼은 지상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련을 겪어야 한다. 변이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천상계에 도달한 나무꾼은 선녀와의 재회의 기쁨도 잠시 천상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신과는 이질적 존재들인 옥황상제 또는 선녀의 형제, 친척들로부터 강력한 저지를 받는다. 가장 강력한 저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된 변이형에서는 목숨을 건 내기까지도 감내해야 한다.⁶⁾

천상계로의 여로를 통해 나무꾼이 겪게 되는 인식의 변화는 이 민담을 단순한 설화가 아닌 상당히 잘 짜여진 서사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지상계와 천상계를 서로 문화권에 속하는 생활환경으로 본다면 나무꾼은 이주민으로서, 그가 겪는 시련은 시대를 막론하고 타문화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나무꾼은 타문화권으로의 이주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며 결국은 다시 지상계로 돌아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나무꾼과 선녀’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다문화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상황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효성을 창출하는 서사적 장치는 여로라는 플롯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로형 소설의 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6) 배현룡이 ‘나무꾼 천상 시련 극복형’으로 분류한 민담은 전체 변이형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 유형에서는 옥황상제가 마지막으로 ‘목 베기 내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배원룡, 앞의 책, 256면.

플롯의 패턴과 여로

여로형 소설의 기본 요소인 여로가 플롯의 주요 요소로서 기능할 때 유의미한 장치가 되며, 플롯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맥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플롯의 유형화를 시도한 논의들에서 여행 또는 여로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여로 구조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에 대해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도 그 한 방도가 될 것이다. 최근 서사 문화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스토리텔링 관련 논의에서 사례를 찾아보기로 한다.

스토리텔링 관련 저작 중에서 플롯과 관련된 논의로 주목을 끄는 토비아스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을 살펴보자.⁷⁾

토비아스는 '플롯은 공공자원'이라는 전제 하에 그동안 생산된 수많은 서사물의 플롯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플롯의 기본형을 '마음의 플롯'과 '행동의 플롯'으로 대별한 다음 플롯의 유형을 스무 가지로 나누고 있다. 물론 플롯의 유형을 나누는 일은 무궁무진해서 유형화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토비아스 또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플롯을 나누는 일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패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플롯을 범주화해서 유형을 나누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플롯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효용성을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여로형 소설에 접근해 가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⁸⁾

토비아스가 분류한 플롯의 패턴은 모두 스무 가지로, 이 플롯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범주에서 유용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기에 전통적인 서사

7) 로널드, B. 토비아스(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2007.

8) 위의 책, 103~105면.

양식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유용한 접근이라 판단된다. 여로형 소설의 발생과 전개는 매우 연원이 깊은 현상이며 여전히 유효할 것이기에 그러했다. 그런 의미에서 토비아스가 제시한 패턴들 중에서 상당한 정도가 직접적으로 여행 또는 여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추구와 추적, 구출, 탈출, 변모, 성숙 등의 주요 패턴에서 여행과 여로는 해당 패턴의 핵심이거나 그 깊이를 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행이나 여로는 전체 서사에서 단순한 장치로 등장하는 경우와 직접적으로 주제와 연관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기에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서사적 장치라 판단된다. 그런 맥락에서 귀납적으로 탐구되어 온 다양한 양상들을 중심으로 여로형 소설의 유형화를 시도해 볼 것이다.

3) 여로형 소설의 유형화

앞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여로형 소설의 소설사적인 맥락과 소설 향유자를 위한 효용성을 탐색하는 일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유형화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여로형 소설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다. 유형화라는 것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유형화가 오히려 여로형 소설의 생산과 향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공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많은 소설 전공자 및 문학교육 전공자들은 거의 반반으로 유형화에 찬성하거나 반대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여로형 소설의 유형에 주목하여 여로의 본질을 놓

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문학연구나 문학교육 현장에 한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신비평의 공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신비평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이 형식적 자질에 주목하게 만듦으로써 문학 독서의 내면화 또는 자기화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 있었음을 자주 목도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과정을 통해 소설 교육을 받은 독자들이 시점을 찾아내고 구성 단계를 따져보고 인물 유형을 살피는 일을 넘어서서 주체적으로 깊이 있는 소설 읽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현상은 그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⁹⁾

그럼에도 여기에서 유형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여로형 소설이 지닌 역사성과 이 소설 양식을 통해 담겨 전해져 내려온 문학적 경험의 유용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는 데 있다. 인류가 생산해 온 수많은 서사물들을 유사한 성질을 지닌 형식적 자질들을 중심으로 분류해 볼 때, 여로형 소설은 그 정체성이 매우 분명하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범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로라는 요소가 형식적 요소이면서도 주제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속성을 지닌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여로형 소설의 요건

유형화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여로형 소설이 지녀야 할 요건이다. 그 필요성은 이리이러한 요건을 지녀야 여로형 소설에 속한다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다. 길거나 짧거나,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간에 '여행'이라 부를만한 여지가 있는 행동이 나타나면 다 여로형 소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여로형 소설이 어떤 형식적 요소에 의한 분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서사물의 문학적 의미를 구현하는 장

9)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줄지, 『문학교육을 위한 소설사 서술방법』, 『소설교육의 맥락』, 월인, 2017. 45~78면.

치로서 기능하는 여행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할지 모르나, 여로형 소설에서 여로를 ‘내적 형식’이나 ‘외적 주제’라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식적 특성을 지닌 장치로 인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요건 1. 공간 이동

여로의 특성 상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은 공간 이동이다. 공간 이동은 크게 출발지-경유지-도착지-(출발지) 등으로 선형화된다. 여기서 ‘도착지-(출발지)’는 도착지에서 여로가 끝나는 경우와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를 포괄하게 된다. 이 지점은 여로형 소설 연구의 선편을 쥐고 있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김윤식 교수의 명명법을 빌면 원점회귀형 여로와 직선형 여로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¹⁰⁾

여로에서의 공간은 매우 다양한 속성을 보인다. 서사 양식의 단계에 따른 다양성은 물론이고 시대와 환경, 주제, 플롯의 패턴에 따라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공간 이동 자체만으로는 여로형 소설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개별 작품들을 분석하다 보면 공간의 이동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행이 서사적 요소로 등장하기는 하나 단순히 장치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간의 이동은 다음 조건들을 아울러 수반할 때만 여로형 소설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요건 2. 변화

변화는 여로형 소설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여행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여로형 소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행이 등장인물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10) 김윤식, 『서사양식의 문제들』, 『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153~177쪽.

있어야 한다.

변화를 주요 요건으로 설정하는 근거는 일차적으로 '사건'과 '주인공'의 개념을 규정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사건과 주인공의 개념은 서사 양식을 논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때로 경시되기도 한다. 대학생 독자들을 대상으로 사건과 주인공의 개념을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독자들의 답은 선명하지 못하다. 문학개론이나 소설원론 류의 저작들을 훑어 보아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한 상식으로 접근해도 가능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건을 '등장인물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일'로, 주인공을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겪은 인물'로 개념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¹⁾ 서사의 출발과 끝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개념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독자들이 공교육 과정을 통해 받은 소설 교육에서도 이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 독자들이나 사회인이 소설을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로형 소설은 작품에 내재된 여행이 인물의 변화를 수반할 때 필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공간 이동만으로는 플롯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경우 '여행 소설' 정도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로형 소설에서 구현되는 '변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윤후명의 〈하얀 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¹²⁾ 이 작품은 주인공이 한국에서 출발해

11) 줄고, 『소설 교육을 위한 이론 개념의 정착과정 및 재설정 방안 연구』, 『문학교육학』 40집, 2013, 163-203면.

12) 이 작품은 대학생 독자들과 여로형 소설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변화'의 양상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사례로 선정했다.

서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는 여정을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있다. 주인공은 출발 전에는 '나만의 방을 가질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 온' 피해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젊은 시절 대부분을 쫓겨 다니는 신세로 지냈으며 '공민권의 제한'을 받아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 온 터였다. 그런 주인공이기에 이 사회와 국가는 그에게는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어렵게 취직을 해서 얻은 직업인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 차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매우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된다. 민족과 국가 개념의 재발견이었다.

일생동안 변할 것 같지 않던 그의 의식이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한 고려족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이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중앙아시아로의 이주민들의 후손인 소녀는 단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민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어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를 배우고 있다. 넓은 벌판에 퍼져나가는 서툰 한국어 인사말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의 피해의식에 대한 교정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¹³⁾ 자칫 진부하고 계도적인 메시지로 치부될 수 있는 작가의 목소리는 여행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주인공의 의식 변화는 여행의 과정에서 맞닥뜨린 구체적인 상황과 문체적인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의 단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여로 구조는 주인공의 변화를 배태시키는 긴요한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여로형 소설에서 여로를 통한 변화의 양상은 인물의 '의식'과 '행동',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또는 환경의 차원 등에서 나타난다. 즉 인물이 겪는 변화가 메시지 구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여로형 소설의 요건을 갖춘

13) 윤희명, 〈하얀 배〉, 『이상문학상수장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21-64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건 3. 목적

여로형 소설의 또 다른 요건으로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여행이라는 요소가 서사 구조의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요건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행을 소재로 한 소설들 중에서 여로형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소설들을 선별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로형 소설에서 목적은 여행의 주체가 되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에 필연성과 인과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살핀 바 있는 토비아스의 추구의 플롯이나 성숙의 플롯 등에서¹⁴⁾ 여행이 주요 모티프로 작용하는 경우를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추구의 플롯에서 추구의 대상이 여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상 자체가 여로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을 발견하고 취하게 되는 여로의 진행과 성격이 전체 서사의 설득력을 확보해 줄 것이다. 대상을 만나는 과정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면 구조적 설득력은 떨어질 것이다. 즉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나 과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서사가 된다. 그런 점에서도 여로형 소설에서 목적은 해당 소설을 좋은 서사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여로형 소설에서 목적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또는 이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의로 여행을 떠나게 될

14) 토비아스는 '추구의 플롯'과 '성숙의 플롯'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추구 : 가장 오래된 플롯으로, 주인공이 사람, 물건, 도는 만질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플롯의 특징은 주인공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여행이 이루어진다. 여행의 목적은 대상의 추구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많다. 이 플롯은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에 기여한다.
- 성숙 : 성장기의 절정에 있는 주인공의 도덕적, 심리적 성장에 집중하되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수행한다. 종종 여행을 그 장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때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로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서사의 경우 타의에 의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여행의 과정에서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목적이 형성되는 경우는 여로형 소설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게 되는 셈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물론 타의로 여행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인물들의 행적만을 다루는 경우라면 여로형 소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는 여로가 서사 구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목적이 출발 전후, 여행 과정, 여행의 마무리 단계 등 어느 지점에서든 드러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로형 소설의 요건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분석할 경우에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한 경우는 표면적 목적과 이면적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과 이면은 흔히 소설의 구조를 논할 때 표면 구조와 이면 구조로 나누어 살피는 경우와 대응된다. 그렇다면 표면적 목적과 이면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고전 소설 중에서 여로형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¹⁵⁾

15) 동아일보, 1972년 8월 9일자 기사.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심청가>의 주제를 '희생을 통한 구원'으로 해석한 창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더 뮤지컬, 『매거진 뉴스손진책과의 인터뷰』, 2018년 4월호



이 자료는 일간지의 문화면 기사로 <심청전>을 토대로 생산된 오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당시의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앞서 열리게 된 문화 행사에 초청을 받은 한국 문화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이 <오페라 심청>이었다. 그러나 <심청전>의 표면적 주제인 '효'에 대한 서구인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에 가까웠다.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딸의 태도가 과연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부정적인 시선의 요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의 윤리인 '효'가 가족의 희생을 통해 구현된다는 의식은 아이러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응해 제작팀이 내세운 메시지는 '심청의 효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다. 효를 가족 간의 윤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범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당 기사는 보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로형 소설의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관련된 원리적 틀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는데, 특히 여로의 목적을 이원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로형 소설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작품들에 접근했을 때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로형 소설에서 여로의 목적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로형 소설의 요건으로 목적을 중시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여로형 소설의 유형

이제 앞에서 살펴 본 요건들을 바탕으로 여로형 소설들을 선별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추출해 본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로형 소설의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 작품군들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일차적으로 추출해 본 틀은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 제시한 목적이라는 요건에 대한 반론은 당연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해 여행이 주어지는 경우, 내면적인 여행의 경우, 목적과 동기의 구별점 모호 등이 그 주된 논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심사위원들의 지적 또한 매우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이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유형화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다기적이 될 경우 유형화로서의 의미가 반감되며 이 논의가 소설 독자를 위한 이론적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그 포괄성과 제한성을 고려하여 정밀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바탕이 된 논리들은 다음과 같다.

- 여행의 동기와 목적은 크게 자의적/타의적으로 나누고, 자의적인 경우는 다시 회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회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다. 타의적인 경우는 타의의 주체 곧 인물이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주체가 그 인물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인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인지를 일차적인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인물이 가족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낯선 인물(일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인지를 구분하였다. 부정적인 인물인 경우 여행을 떠나는 인물이 여행을 떠남으로써 그 주체가 이익을 얻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양상에 따른 유형은 여러 가지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에 원점회귀형과 직선형으로 나누고 있던 데서 크게 확대된 것인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사적 전개 과정은 물론이고 그 활용의 의미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타의에 의해 중심인물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 그 동기와 목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동기와 목적을 '여행을 떠나보낸 주체의 동기와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만나는 대상과 관련된 맥락은 여행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여행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속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여행의 동기와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록에 오른 고전소설의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력자'인데 여로 구조의 측면에서 조력자라는 요소를 분석할 때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조력자의 속성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소설의 주제 의식을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과 사건이 동일한 비

중으로 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이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모두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사건과 인물은 여행의 동기나 목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양상은 크게 보아 구체화, 변화, 영향없음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변화나 영향없음의 양상이 주로 나타나고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구체화와 변화의 양상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 여행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다는 설정을 더하게 되었다. 주로 현대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비극적인 결말에 해당하지 않는 고전소설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부분은 80년대 이후 소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려 요소로 추가되었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된 요소는 타의에 의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 맥락이 70년대 이후 소설에서는 타의가 간접화된다는 부분이다. 타인이 직접 강요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결과의 양상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점도 80년대 이후 소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틀은 여로형 소설을 분별해 내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별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유형화의 틀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산만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여로형 소설 연구의 선편을 권 김윤식 교수의 소론이 '원점회귀형'과 '직선형'이라는 두 개의 유형으로 간명하게 정리된 것도 유형화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있는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에 이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 목적 달성 복귀형
- 목적 미달 복귀형
- 목적 달성 중지형
- 목적 미달 중지형

이 유형의 명칭에는 세 가지 자질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는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서사에 포함되는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목적을 제 1 자질로 내세운 것은 앞서 살펴 본 요건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로가 형성되어야 여로형 소설의 서사가 출발하며, 여로가 전체 서사와의 유기적인 맥락에서 설정 되려면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순차적인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자질은 이 목적의 달성 여부이다. 이는 서사의 본질을 욕망 구조 또는 갈등 구조로 간주하는 관점과 연관되는데, 욕망의 달성 여부나 갈등의 해결 여부가 서사의 도달점이기 때문이다. 달성과 미달은 당연한 귀결로 이분화 되는 것이기에 첫 번째 자질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서술의 양상에 따라서는 달성과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자질인 '복귀'와 '정지'는 형식의 자질에 가까운 것으로 결말 구조의 양상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다. 김윤식 교수의 소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양상과 여행 이후의 삶이나 생활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질로 보아 설정한 것이다. 즉 목적의 달성과 실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행의 중지와 복귀는 해석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목적의 달성 여부가 미지수일 때 돌아오거나 중지되는 양상과 그 상황에서의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작품에서는 복귀와 중지가 직접적으로 작가의 메시지와 연관되는 경우도 상당

하다.

서술상으로는 중지로 끝났지만 상황 상 복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서사라면, 서술상으로는 목적의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복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메시지의 창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인숙의 〈바다와 나비〉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중국에서의 여행은 중지된 상태로 서술이 종료되고 주인공이 중국으로 여행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귀국한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인지의 여부인데, 바다에 등등 떠 있는 남편의 몸통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으며, 그 이전에 한 노인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여행 목적이 의도한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복귀와 정지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여로의 속성들을 판별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형식적 요소를 넘어서는 자질이라 판단해서 유형의 명칭에 포함하게 되었다.

3. 여로형 소설과 소설 독서

문학이나 독서 전공자, 나아가 문학치유 등과 같은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공교육을 통한 소설 교육을 마감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평생 독자로서 지속적으로 문학과 소설의 향유를 권하고 그 효용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는 대학생들조차도 문학 독서를 평생의 지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같은 현상은 문학 독서 부동층(浮動層)¹⁷⁾을 향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소설에 대한 독서 욕구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독자들에게 소설에 접근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거나 까다로운 일이 아니며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능히 소설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이란 독자가 문학 작품에 대해 정서적, 미적, 인식적 기능¹⁸⁾ 중 주로 인식적 기능과 미적 기능과 관련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략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독자들이 최근의 소설들을 읽고 난 후 보이는 반응 중에 필자를 당혹스럽게 한 것들은 '어려움, 줄거리 파악도 어려움' 등과 같은 반응이다. 스토리 라인 혹은 플롯을 자신의 사고 속에서 온전한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정도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나, 겨우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자신있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힘든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여로 구조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요소로서의 자질을 갖춘 대표적인 내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효용성이 크다고 본다. 작가들이 여로 구조를 왜 선택하는가? 여로 구조는 어떤 맥락에서 소설의 구조로서 많은 선택을 받아 왔는가? 다른 구조적 특질에 비해 그 특질 파악이 용이한 여로 구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가? 그래서 여로형 소설들을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읽을 것인가? 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방법적 틀을 터득한다면 독자들은 지속적인 소설 독서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로는 소설의 발생 초기부터 서사 전개에 가장 굳건한 틀의 하나로 기능해 왔기에 이후

17) 이 용어는 특정한 연구자나 이론에 기반한 개념은 아니며 필자가 수용 미학 등의 분야에서 독자를 바라보는 시각들과 문학 발생론을 다룬 저작들을 검토하면서 얻은 발상들을 종합해서 상정해 본 개념이다. 현재는 적극적인 문학 독서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경험 상, 그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능히 어떤 작품을 읽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계기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문학 독서 활동을 수행해 낼 의지가 있는 독자층을 지칭한다.

18)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학의 기능에 바탕을 둔 기술이다.

에도 여로형 소설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로형 소설의 독서 경험과 결과가 다른 유형의 소설을 주체적으로 읽어나는 능력으로 발전적으로 전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로형 소설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여로형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귀납적 이해에서 나아가 소설적 원리에 토대를 두는 연역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주체적인 독서 능력은 당연히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로형 소설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특히 유형화 및 해당 유형의 조건들에 집중해 본 것이다.

여로의 목적과 동기, 그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여로라는 특정한 형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성 있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스토리 라인이나 플롯 파악 등 가장 기본적인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소설로부터 멀어지는 독자들에게 효과적인 읽기 전략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행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목적과 동기,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하는 활동이 소설 읽기의 중핵적인 범주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일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아우른다면 다음과 같은 소설 독서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여로형 소설의 일차적 읽기 → 여로형 소설의 구조적 원리에 대한 이해 → 여로형 소설 다시 읽기 → 원리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접근(목적이나 동기, 여행 과정, 여행의 결과 추론하고 판단하기 등) → 소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해석과 수용, 내면화

이런 독서 과정의 구체적인 단계화와 독서 활동의 정밀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여로형 소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체계나 설정 내용은 여로 연구자들의 후속 논의를 통해 개선되고 정교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권보드레,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1996.
- 김근태 외,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0.
- 김성진, 『문학교육론의 쟁점과 전망』, 삼지원, 2004.
- 김양선, 『1930년대 소설의 근대적 지형학』, 소명출판, 2003.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숲, 2003.
- 김용권 외 공편역, 『현대문학비평론』, 한신문화사, 1985.
- 김윤식, 『작가의 세계-만세전의 탄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 _____, 정호용, 『한국소설사』, 예하, 1983.
-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아시아, 2001.
-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 임경순, 『자아정체성 형성으로서의 문학사교육』, 역락, 2003.
- _____, 『국어교육론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과치료, 2015.
- 최인자, 『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 한국문화사, 2001.
- 게오르크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 로널드. B. 토비아스, 김석만 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가지 플롯』, 풀빛, 2007.
- 롤랑 부르뇌프 외, 김화영 역, 『현대소설론』, 현대문학사, 1997.
- 루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 르네 지라르(김치수 외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그레이트북스, 2002.
-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외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 블라디미르 프로프,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 이언 와트,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2. 논문

- 권혜린, 『박화성 여행소설의 은유와 환유』, 『구보학보』 13집, 구보학회, 2015, 149-176

면.

김미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차’ 모티프 연구』,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235-262면.

나병철, 『근대 초기 여로형 소설 연구』, 『비평문학』 18, 한국비평문학회, 2004, 53-92면.

박인정, 『여행의 치유적 가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신경숙, 윤대녕, 전경린의 여행소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 한국관광연구학회 2015, 5-15면.

심원섭, 『1910년대 '여로구조'형 서사와 낭만적 서정시에 나타난 일본유학생 문인들의 대韓·日의식에 대하여』, 『한립일본학』 6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6, 18-35면.

이미림, 『1990년대 여행소설의 탈근대적 사유와 타자성』, 『세계한국어문학』 1호, 세계한국어문학회, 2008, 21-35면.

_____, 『박화성 여행소설 연구 - 193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125-143면.

이소운, 『여로형 소설 교육의 내용 연구 - 여로의 의미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76-91면.

이용욱, 『김승옥 문학의 여로 이미지 연구 - 여행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231-249면.

임정연, 『1950년대 새로운 '통속'으로서의 아메리카니즘과 '교양' 메커니즘』, 『현대문학이론연구』 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29-352면.

황국명, 『90년대 여행소설과 공간 전위』,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22호, 산지니, 1996, 121-139면.

<Abstract>

Theoretical Search of “Journey-Type Novel” for Novel Reader

Kim, Dong-Hoan

This thesis aims to find a useful reading method for readers who have a desire to read novels but seem to be difficult to practice. From my empirical judgment, in order to enable readers' novel reading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efficiently and subjectively, a methodical framework based on cognitive function is required. As an example, the method of learning novel reading strategies through a journey-type novel.

In a journey-type novel, the journey structure is useful in that the reader's experience is supported at a very high rate, the cognitive function naturally accompanies it, and the transfer to one's own life can be easily accomplished.

However, in the process of proceeding with related discussions, this discussion was started because the need for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journey-type novel, which is still unstructured and weak in system, was requested. Specifically, prior to the type of journey, it was used as a criterion for categorizing and extracting the conditions after the warrior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personality. As a result, the two axes were “whether the purpose was achieved” and “whether to return”, and four logically derived forms of combination were set as the types.

In later discussions, I hope that the theoretical elabo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journey-type novel as a strategic method for reading novels will progress further.

Key words: Methodical strategy, journey type novel, journey structure, cognitive function, goal achievement, return or not

투 고 일 : 2020년 1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3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